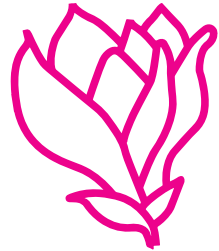


2016. 1. 3 첫 주일 예배
성탄 후 제2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배화 대학 교회

주일예배순서

2016. 1. 3 오전 11시

찬 양 나의 맘 받으소서

예배를 여는 기도

찬 양 햇살보다 밝게 / 예배합니다

대표기도 송민혜 전도사



성찬으로의 초대 집례자

회개의 기도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땅과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죄와 싸워나가기 원합니다. 습관의 폭력과 마음의 탐욕이 바른 인생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어리석은 잘못과 죄악을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깨닫게 하시며 또한 뒤우치고 돌아와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 집례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일 2:1-2)

평화의 인사 다함께

집례자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 :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 :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회 중 :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 도 집례자

성찬제정사 집례자

성령임재의 기원 집례자

분 급

찬 양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성찬 후 감사기도 다함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 더욱 하나되기를 힘쓰게 하시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옵소서. 나아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신앙과 삶이 하나되어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도구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다함께 <마가복음 1:1-11>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6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7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9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이들을 위한 축복기도

*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선포 김영석 목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1)

마음을 드리는 기도 다함께

봉헌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축 도 김영석 목사

후 주 그의 길을 따르며

주 예수 의 크고 높은 사랑 우리 몸 마음 예 내
 오 호 수 님 오 신
 경 주 사 베풀 소 서 오 날 이 시간 우리 게
 그 의미 를 가슴 깊 이 새겨 서 영 원 로 그 의 길 을 따 르
 며 앞 을 전 하 리 주 예수 님 오 신 그 의미 를 가슴 깊 이 새겨
 서 영 원 로 그 의 길 을 따 르 면 서 주 안 양 하 리 전 의 하 리

알리는 말씀

1. 배화대학교 첫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복지관 지하 캠펠홀에 220석 규모로 전면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되어 아름다운 예배처가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